

2020 주요 생명공학 IPO

주예령 주임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정순옥 투자이사 한국투자파트너스

- 2020년 COVID-19의 영향으로 바이오 산업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9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100개社 이상의 바이오 기업들이 IPO를 수행하였고 이들 기업은 2018년과 2019년의 공모자금을 합산한 금액보다 높은 2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함.
- 높은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은 최소 32건의 예상가를 상회하는 거래와 기업의 예상보다 더 많은 주식을 판매하는 여러 대규모 자금조달 특징을 보임.
- 상장 바이오 기업들은 약 400억 달러를 유상증자하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으며, 25개의 바이오 관련 백지수표기업 혹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들은 합병을 위해 34억 달러 이상을 조달함.
- 바이오 산업이 상업화되는 현상은 COVID-19로 인한 세계적인 관심 증대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결과로 평가되며, 바이오 관련 IPO 기업의 급속한 증가는 바이오 산업이 빠르게 글로벌화 하고 있다는 증거로 분석됨
- SK바이오팜: FDA 승인받아 출시된 뇌전증 치료제 ‘Cenobamate’는 2019년 11월에 IPO시 \$6 B 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음. 동사는 또한 2020년 6월 IPO에서 9,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이는 2020년도 생명공학 IPO 중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사례임.
- 중국 바이오 기업 IPO는 지속적으로 상당한 자본을 조달해왔으며, 글로벌 공모자금 조달 순위 상위 10개 기업 중 절반을 차지함. 홍콩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11개 기업을 포함하여 중국의 바이오 기업 20개는 2020년 한 해 동안 53억 달러 이상의 IPO 자금을 조달함
- 특히 2018년 및 2019년에 홍콩에서 상장한 생명공학 기업들은 3개 이상의 주요 후보 약물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0년 상장한 11개 기업 중 7개는 1개 또는 2개의 주요 후보 약물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됨

[표 1] 2020년 상위 10개 바이오 IPO

| 기업명 (국가) | 모금액 (US M\$) | 상장단계 | 분류 |
|--------------------------------|--------------|-------|---------------------|
| SK 바이오팜 (대한민국) | 799 | 시장 출시 | 저분자 CNS 약물 |
| AbCellera Biologics (캐나다) | 556 | 시장 출시 | mAbs |
| RemeGen (중국) | 514 | 등록 | mAbs 및 ADCs |
| Legend Biotech (미국) | 487 | 임상 2상 | CAR-T 세포치료제 |
| Relay Therapeutics (미국) | 460 | 임상 1상 | 종양학 약물 |
| Everest Medicines (중국) | 451 | 임상 3상 | 중국 시장 타겟 후보 물질 라이선싱 |
| Akeso (중국) | 383 | 임상 3상 | mAbs 및 이중항체 |
| Genor Biopharma (중국) | 371 | 등록 | 저분자 약물 및 mAbs |
| Gan & Lee Pharmaceuticals (중국) | 360 | 시장 출시 | 인슐린 및 당뇨병 치료제 |
| Atea Pharmaceuticals (미국) | 345 | 임상 2상 | 저분자 항바이러스제 |

출처: nature review

풍부한 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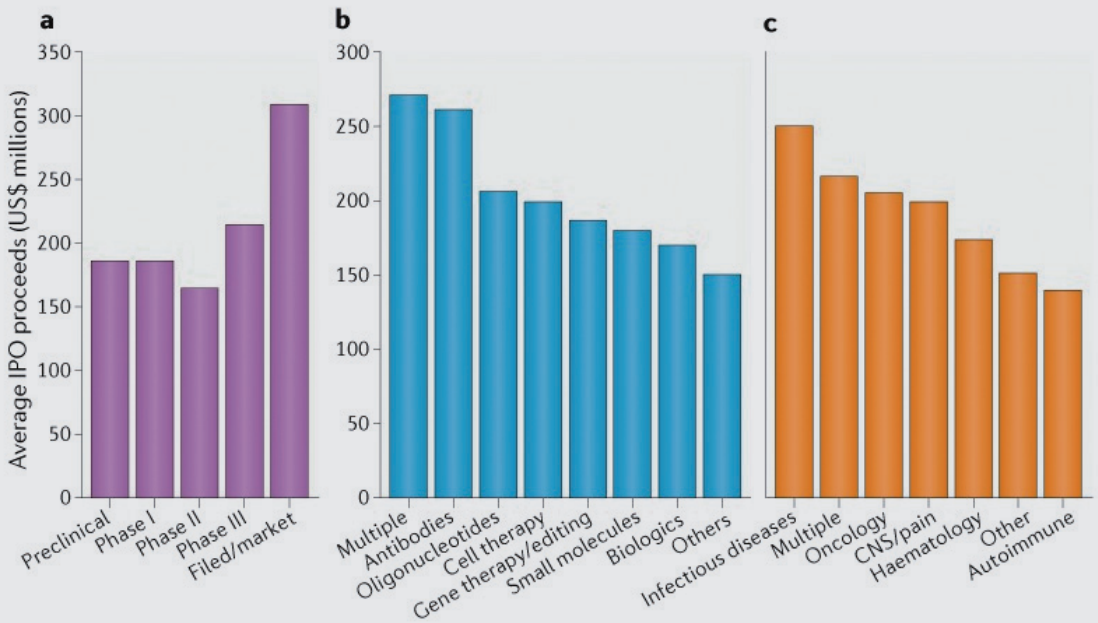
- 2020년 IPO를 실시한 기업들은 2019년 IPO를 한 기업들보다 상당히 많은 자본을 조달함. 2019년에는 평균 모금액이 1억 달러 미만이었으나 2020년에는 1억 9천만 달러를 달성 하였으며, 이러한 대규모 자금 조달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초기 완전회석 시가총액인 연평균 포스트 머니 시장가치를 증가하는데 기여함
- 미국 상장 IPO 기업 코호트 중 제도권내 신규 기업들은 2018년과 2019년 바이오 호황기에 진입한 기업보다 평균 30% 정도 더 높은 가치로 평가됨. 지난 2년 동안 미국 바이오 IPO 기업들은 약 6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2020년에는 평균 7억 8,200만 달러로 성장함 (2020년 바이오 IPO의 자금 조달 금액의 평균은 6억 2,400만 달러 이상으로 2019년의 평균 4억 1,300만 달러보다 약 50% 증가함)
- 유니콘 기업들은 2019년 제도권 시장의 17%를 차지하였고, 2020년에는 13% 밖에 차지 못함. 따라서 바이오 기업들의 대규모 자금 조달은 유니콘 기업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 아닌 것으로 분석 가능함. 또한 포스트머니 가치가 5억 달러 미만인 기업은 2018년 및 2019년에는 각각 62%, 67%의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20년에는 32%에 불과하였음
- 이러한 기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대규모 IPO 때문만은 아니며, 미국 IPO에서 조달한 자금을 추가하기 전의 가치인 프리머니 평가액도 2019년보다 2020년에 더 높았음

- 프리머니 평가액은 2019년 평균 5억 1,000만 달러였으며, 2020년에는 평균 6억 1,400만 달러에 이르렀고 중앙값은 2019년 3억 1,500만 달러에서 2020년 4억 5,400만 달러로 증가함

🏥 팬데믹에 따른 반응

- 모금액과 기업 가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듯 했지만, 몇 가지 눈에 띄는 혁신 분야가 있음. 투자자들은 COVID-19에 빠르게 대응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집중한 기업에 주로 투자함
- COVID-19 치료제 후보 물질이 있는 4개 기업은 약 15억 달러 자금을 조달함. 그 결과, 다양한 치료 분야 중 감염병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균 IPO 밸류 (2억 5,000만 달러)를 달성케 함

[그림 1] 2020년 IPO의 특징



출처: nature review

- 대표적인 예로는 항체 중심의 AbCellera Biologies가 있으며, 주당 14~17달러에 2천만 주를 공모한다는 예상치를 능가하여, 1주당 20달러로 2천8백만 주를 공모, 12월 IPO시 5억5천6백만 달러를 모금하였음.

- AbCellera는 지난 3월 Eli Lilly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SARS-CoV-2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개발했으며 FDA로부터 COVID-19에 대한 bamlanivimab 긴급 사용 승인을 11월에 받음
- 지난 10월 저분자 신약 분야에서 Atea Pharmaceuticals은 Roche와 SARS-CoV-2 중합 효소 억제제인 AT-527의 공동 개발 협정을 맺은 직후, 1억 2,500만 주를 주당 최대 22~24 달러로 총 3억 4,500만 달러에 판매함
- 2018년과 2019년에도 여전히 총 IPO 자본시장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종양학 분야임. 총 42개의 항암 신약 관련 기업이 2020년 IPO에서 87억 달러 이상의 모금을 달성함
- 특히 세포 치료제를 주로 개발하는 Legend Biotech는 6월 IPO에서 4억 8,700만 달러 이상의 모금을 달성하였으며, 발행한 1,840만주는 1주당 예상 공모가인 18~20달러를 상회한 23달러에 공모 완료됨. 12월 다발성골수종 환자를 위한 BCMA 유도 CAR-T 세포 치료제 '실타캡타진 오토류셀(ciltacabtagene autoleucel)'의 FDA 승인을 신청함
- Relay Therapeutics는 단백질 운동과 기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표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저분자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연구를 주로함. Roche와 공동 개발 중인 SHP2 억제제 RLY-1971가 대표 약물이며, 현재 임상 1상에 착수함
- 이러한 암 후보 물질들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나 지난 7월 주당 20달러에 2,300만 주를 공모하여 4억 6,000만 달러를 모금함
- 지난 몇 년 동안 임상의 단계는 성공적인 IPO를 위한 필수조건이 되지 못하였으며 투자자들은 아직 임상을 시작하지 않은 신규 물질에 투자하고자 함. 실제로 바이오 IPO시 주요 개발 약물이 2019년에는 전임상 단계 및 임상 1상 단계인 기업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임상 단계인 기업이 24%, 임상 1상 단계인 기업이 1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됨
- Relay에 이어 종양학 및 혈액학 분야에서 저분자 포트폴리오를 갖고있는 Forma Therapeutics는 지난 6월 IPO에서 3억 1,900만 달러를 모금하였는데, 개발 중인 약물 중 가장 개발이 빠른 약물은 임상 1상 단계였음
- 마찬가지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제조사인 Avidity Biosciences와 자연살해세포 제조사인 Nkarta Therapeutics는 IPO 당시 초기임상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밸류의 투자를 받았음

+ 시판 후 판매실적

- 미국 거래소에서 기업공개 이후 2개월 동안 주가가 20% 증가한 바이오 기업은 2018년 및 2019년에는 각각 34%, 41%를 차지한 반면, 2020년에는 약 67%을 차지함. 같은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한 기업은 2018년 및 2019년에는 43%인 반면 2020년에는 25%만 해당됨

[표 2] 2020년 IPO 이후 60일 실적 기준 상위 10개 미국 상장 IPO

| 기업명 | IPO 이후 60일간 실적 | IPO 당시 임상단계 | 분류 |
|----------------------------|----------------|-------------|-----------------|
| CureVac | 239% | 임상 3상 | mRNA 면역 요법 및 백신 |
| Zentaris Pharmaceuticals | 174% | 임상 2상 | 종양학 약물 |
| Tarsus Pharmaceuticals | 160% | 임상 3상 | 저분자 안과질환 약물 |
| Prelude Therapeutics | 156% | 임상 1상 | 종양학 약물 |
| BioAtla | 149% | 임상 2상 | 단클론 항체 종양학 약물 |
| Vaxcyte | 141% | 임상전 | 전염병 백신 |
| Schrodinger | 136% | 임상전 | 저분자 약물 설계 |
| ADC Therapeutics | 128% | 임상 2상 | 종양학의 ADC |
| Silverback Therapeutics | 124% | 임상 1상 | 종양학의 ADC |
| Praxis Precision Medicines | 123% | 임상 3상 | 저분자 CNS 약물 |

- S&P 500 지수는 16% 상승에 그친 반면, XBI¹⁾ 생명공학 지수는 2020년에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바이오 기업의 성장이 단순히 빠른 경제 시장의 회복에 의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

- 신규 바이오텍 IPO는 평균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보여 2020년 말에는 IPO를 실시한 기업들의 주가는 평균 발행가의 거의 두 배에 달했으나 이 중 약 1/3만이 IPO 발행일에 맞추어 XBI 구성으로 소개되었으며, IPO 이후 2개월간 실적을 관찰하여 주가가 상승한 15%만이 XBI에 구성될 수 있었음

1) SPDR 가 2006년에 상장한 생명공학(바이오)투자 ETF로 S&P Biotechnology Select Industry 인덱스 지수를 추종하며, SPDR 가 판단한 종목이 아닌 S&P 가 공포하는 지수를 따름

2) 마지막 비공개 시기에서 IPO로의 추가 상승

- 미국 IPO 이후 60일 동안의 공모 후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스텝업²⁾ 평균값은 2020년 1.5 배 (2018년과 유사)에 약간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으며, 2019년의 1.3배 보다는 다소 상승하였음.

- 특히, 9개의 기업은 2배 이상의 스텝업을 해냈으며, 이 중 일부는 발행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큰 지분을 원하는 내부 투자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방안을 모색함

〈 참고자료 〉

1. 2020 biotech IPOs shatter all the records, Nature Reviews, 2021.01, Tess Cameron & Chris Morrison

Writer

주예령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주임
e-mail: yrjoo@jjpat.com

Reviewer

정순욱

한국투자파트너스, 투자이사

BIO ECONOMY BRIEF

발행 : 2021년 6월 | 발행인 : 고한승 | 발행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1층, www.koreabio.or.kr
* 관련 문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e-mail : Koreabio1@koreabio.org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KOREA BIO-ECONOMY RESEARCH CENTER

Innovating Data Into Strategy & Business



9 772508 681005 19
ISSN 2508-6812